

# 1936년 천변 빈민들 집단 이주... 학동에 전국 첫 갯생지구

(옛 학동 8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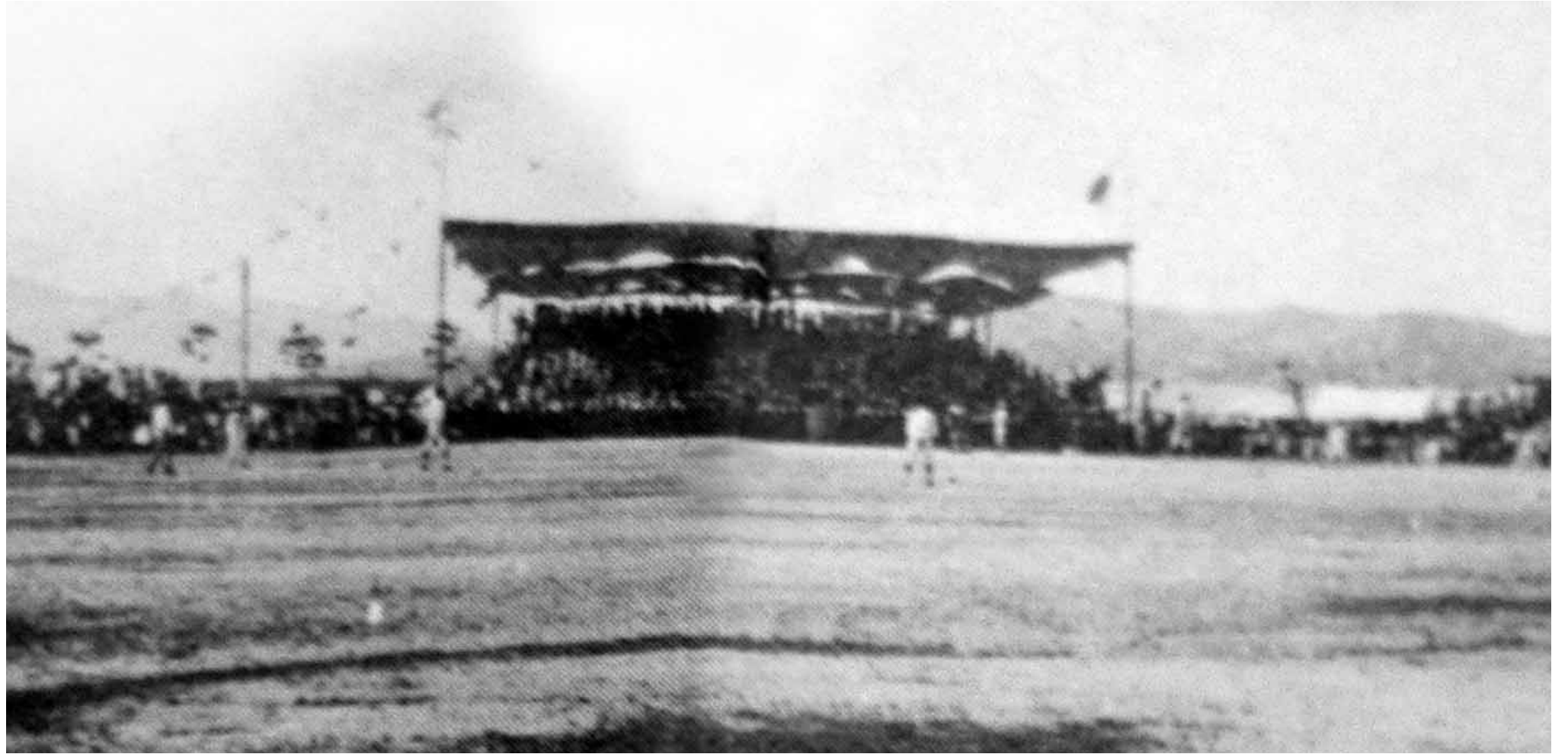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광주편〉

20. 금융기관 그리고 갯생지구

日, 하천정비 위해 거주민들 쫓아내  
1만평 매입...도로·세탁소·학교 설치  
첫 은행은 1906년 '광주농공은행'  
일본인에 특혜...해방후 10곳으로  
전당포 22곳은 광주부 직접 관리



1930년 광주천 하류 하천정비사업으로 1931년 4월 조성된 대운동장. 지금 양동시장 자리로 주로 야구장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일제는 1939년 사정시장이 자신들의 상점이나 마한가지인 광주신사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1940년까지 시장을 대운동장 부지로 이전시킨다. 이로 인해 양동시장이 탄생하고, 운동장이 옮겨간 곳이 바로 무등경기장이 된다.

광주의 첫 근대금융기관인 광주농공은행이 설립된 것은 1906년 7월의 일이다. 자본금 10만원의 이 은행은 업무구역을 전남은 물론 경남 남해군으로 했다. 1913년 자본금을 20만원으로 증자했으며, 1917년 1월15일 적립금은 7만4263원70전, 예금고는 정부차입금(7만원)과 농공채권 발행고 37만원 등 모두 111만9712원975전이었다. 은행장은 김형욱이, 임원은 정낙교, 박하준, 현기봉 등이, 감사역은 지응현, 최원택 등이 맡았다.

지방농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광주금융조합은 1907년 7월 허가를 받아 1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관할구역은 광주·화순·동북·능주·담양·창평·옥과·곡성이었고, 각 군의 군수, 광주 유지였던 김형욱, 조운환, 이용익 등이 창립위원으로 참여했다. 초대 조합장은 최상진이 맡았고 조합원은 1034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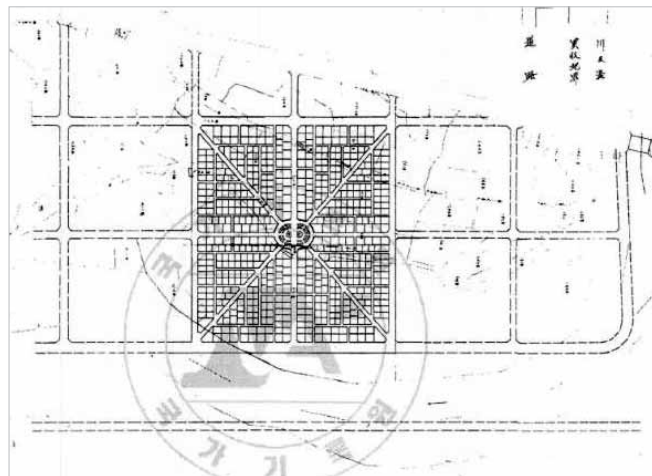
1910년대 후반부터 광주에 근대 상업·공업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이들에게 자본을 대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필요해졌다. 대부분 '특혜'를 기대하며 광주에 진출한 일본인들을 위한 금융기관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925년 당시 광주의 금융기관은 광주농공은행을 전신으로 해 1918년 설립된 조선식산은행, 1920년 9월 창립된 호남은행, 광주금융조합에 이어 1919년 2월 들어선 광산금융조합, 1918년 11월 설립된 전라남도금융조합연합회, 1924년 3월 창립된 광주부진주식회사 등이 있었다. 본점의 자본금이 3000만원인 식산은행 광주지점과 지방은행으로는 150만원의 자본금에 목포와 순천에 지점까지 둔 호남은행이 당시 지방금융계의 생벽이었다. 서민은행으로는 광주와 광산의 금융조합이 있었고 전남의 53곳의 도시촌락에 746곳의 금융조합에 대한 지도기관으로 연합회가 있었다. 광주부진주식회사는 자본금 10만원으로 창립돼 1924년 말 당기대출총액은 8만7425원, 순이익은 5919원77전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공익질음, 지금의 전당포 운영을 광주부가 맡아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했다. 전당포의 수는 일본인 대상 5곳, 한국인 대상 17곳 등 모두 22곳에 달했다. 1930년대 이르러 식산은행, 호남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광주지점과 동광주금융조합도 생겨났다. 해방 후인 1956년 광주에는 한국은행 광주지점을 비롯해 조흥·산업·한일·제일·중소기업·국민·상업 등 8개 은행 지점과 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지부 및 광산군 조합 광주지소가 광주시의 금융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외에 일제강점기 광주에는 여러 가지 근대시설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개방'과 '수탈'이 반복되면서 공민(지금의 영세민)으로 전락한 도시 빈민들을 위한 이례적인 사업이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에서 실시됐다. 광주의 지식인들이 일제의 광주천 개발사업과 함께 그 주변에서 생계를 이어갔던 토막민(움막을 짓고 집단 거주하던 빈민)이 쫓겨나게 되자 이들을 위한 '갯생시설'을 강하게 주장했고, 일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방 최홍중 목사는 직접 광주를 방문한 조선총독을 만나 담판을 짓기도 했다.

1930년 일제는 광주천 하류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하천 주변에서 거주했던 빈민 500여 호를 이주대책은 물론 이전료 한 푼 없



1936년 광주천 방수공사로 인해 쫓겨나게 된 도시 빈민들을 위한 갯생지구가 광주천 인근(동구 학동)에 조성되기 시작한다. 1936년 갯생지구의 평면도와 지난 2000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기 전 학동 8거리 전경.



이 내뿜었다. 이는 곧 사회 문제가 부각됐고, 지역민의 반발도 컸다. 이러한 실정에서 6년 뒤인 1936년 일제는 광주천방수공사를 실시하면서 비숙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 목사를 비롯한 지역 유지들은 단체를 만들어 전남도청을 항의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과 면담을 성사 시키기도 했다. 이 사업에 대해 당시 신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광주부는 오갈 곳 없는 광주 빈민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갯생지구'라는 새로운 명칭 하에 1만여 평의 대지를 매수해 도로, 우물, 하수구 시설을 완비할 목적으로 1936년 예산에 3만원을 계상했다. 이는 어느 도시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일이다. 인구가 5만3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광주부에서 자신의 집을 소유한 주민은 인구의 절반이 안 될 만큼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천 상류인 금정(동구 금동), 양림정(남구 양림동) 하천 부지에는 어느 틈에 모여들었는지 빈민 500여 호가 자리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수해로 2500명에 달하는 이주민이 발생하는 등 하천정리는 긴급 중대사이다.

광주부는 6년 전, 광주면 당시 광주천 하류인 광주대교 부근 하천을 정리하면서 500여 호의 빈민들에게 이주지 지정 및 이전료 지급 없이 주택을 강제 철거해 큰 사회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광주부는 이번 광주천 상류에 대해서는 이전료 지급 및 이주지까지 지정했다. 갯생지구 위치는 신광주역(남광주역) 남쪽 종방제사 공장 건너편이 유력하며, 도로, 공동우물 2곳, 공동세탁소, 간이학교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부회에서 일본인 의원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조선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해 실시하게 됐다."

갯생지구는 기존의 세민부락에 거주하고 있던 철거민을 집단 수용해 통제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금교와 남광주역 철교 사이 빈민촌 철거를 전제로 한 광주천방수공사는 원래 총독부의 내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토막민에 대한 총독부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갯생지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광주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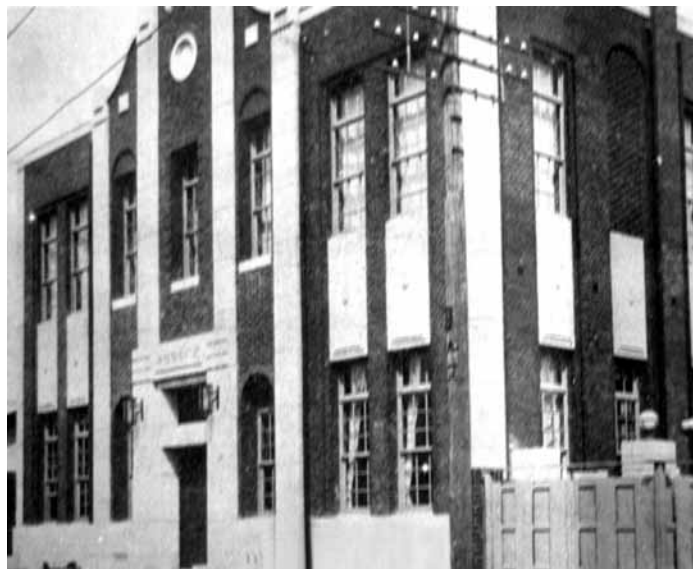
1936년 7월3일 3만원의 기채를 조선총독부에 신청하고 그 해 10월 27일 인가받았다. 사업에 착수한 광주부는 약 8680평의 하천매립지 내에 도로 예정부지 약 1000평, 갯생지구 내의 도로 3348평, 공동세탁장 및 공동정호 등 262평을 배치하고 나머지 4070평의 토지를 매각할 생각이었다.

또 빈민들이 이전료만으로는 이 갯생지구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이들을 광주천방수공사와 갯생지구 매립공사에 인부로 동원한 뒤 여기서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를 저축시켜 갯생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2할(1인 하루 50전의 10전)을 강제로 저축시키고, 또 자신이 직접 가옥을 이전하는 경우 1호당 평균 약 11원이 생기는데 이를 토지 매수에 충당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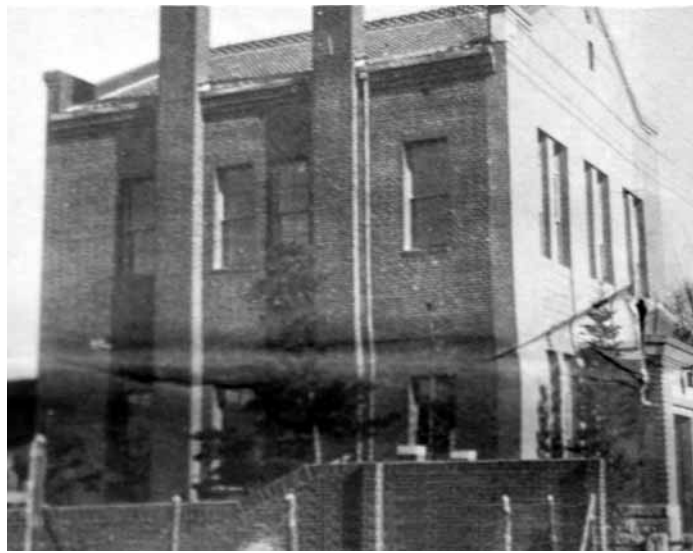
갯생지구로 이전해야 할 빈민 중 자신의 정도에 따라 '갑'과 '을'로 구분, 9~24평까지 623개 필지를 정비해 경제적 여력이나 실정에 따라 적당히 할당했다. 그리고 일부는 일반에게 개방해 공개경매에 붙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빈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분량을 470호 5148평(평균 1호 매각면적 11평, 평균 평당 2인, 대금 1만296원)을 미리 정해두고 잔여지 5002평은 필요에 따라 적당히 매각처분하기로 했다. 이 갯생지구는 학동 8거리라는 이름으로 2009년까지 그 골격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화2주거환경개선구역에 포함되면서 철거된 뒤 아파트단지로 개발됐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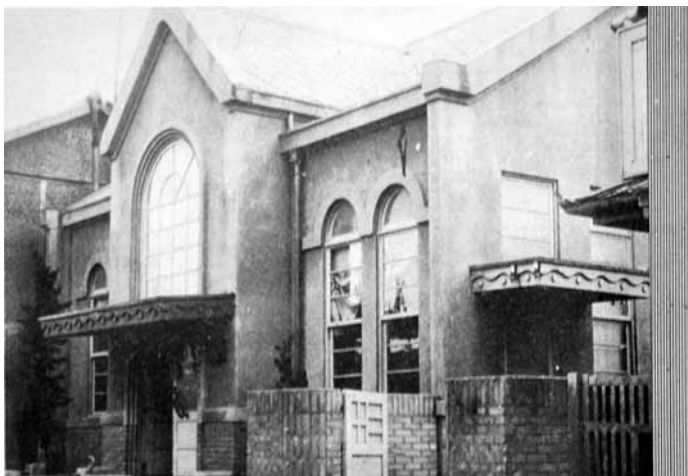
광주금융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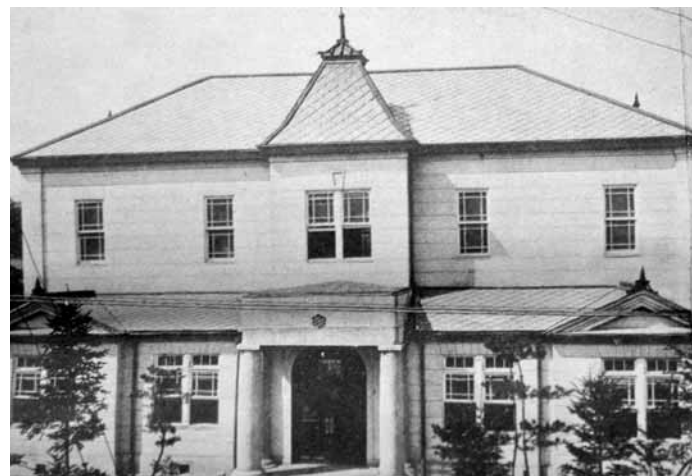
광산금융조합



호남은행



동광주금융조합



식산은행



금융조합연합회 전라남도지부